

#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



##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

## 기회로의 연결

이점:

- 미주 대륙 내 다른 주요 항구들보다 최대 3일 먼저 아시아 허브로 연결됩니다.
- 항만과 철도 그리고 도로가 완벽하게 통합된 믿을 수 있는 최첨단 운송망을 통해 화물을 운송합니다.
- 캐나다와 미국 간의 스마트 국경은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 캐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미래의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 상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관문 및 통로는 아시아와 북미 심장부를 잇는 운송 루트를 확장하는 동시에 화물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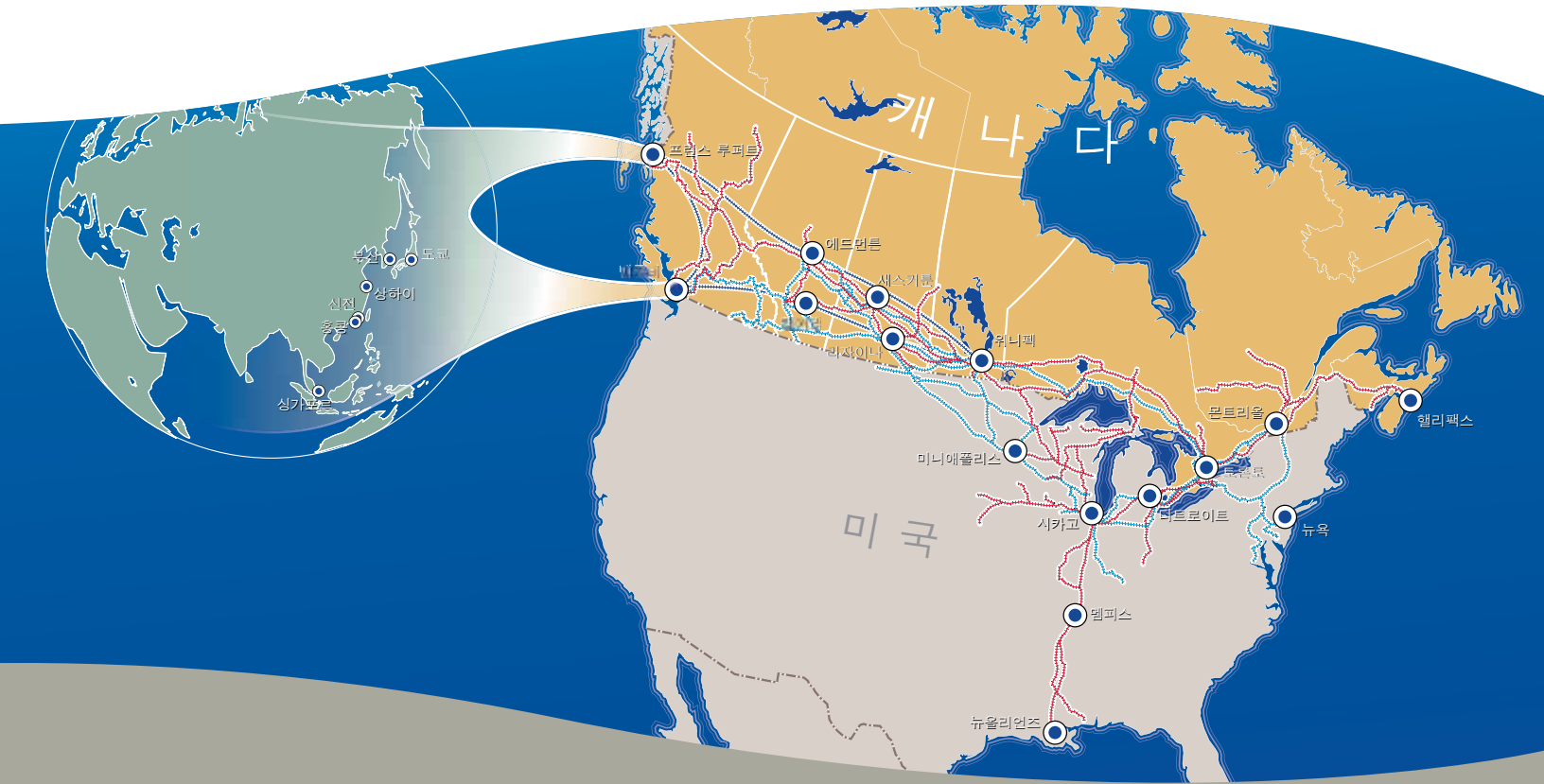
웨스턴 캐나다에 위치한 메트로 밴쿠버 항과 프린스 루퍼트 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관통하여 북미와 아시아를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교통 시스템은 항구와 철도 그리고 도로가 두 나라 주요 경제 중심지들을 연계하면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 전폭적인 노력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관문 및 통로 구상은 지금껏 유례가 없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북미 시장과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을 연결하는 캐나다의 전략적 입지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이 공동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 풍부한 이점

웨스턴 캐나다는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노동력 기반이 탄탄합니다. 아울러 전체 인구의 14퍼센트가 아시아계인 까닭에 확고하게 형성된 아시아계 상권이 해외 시장과 문화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시아계 주민 비율이 38퍼센트에 달하는 그레이터 밴쿠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 왜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이어야 하는가?

- 다른 북미 대륙 항구들에 비해 최대 3일까지 항해 기간 단축
- 교역량 증가에 따른 메트로 밴쿠버 항과 프린스 루퍼트 항의 처리 능력 확대
- 다른 북미 서해안 항구들에 비해 짧은 체항 시간
- 보안성과 효율성
- 깊은 항구 수심
- 아시아에 뿌리를 둔 다언어, 다문화 노동력

# 장기 계획 수립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 및 통로에 대한 공공-민간 합동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운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와 웨스턴 캐나다 내 주요 도로와 철도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메트로 밴쿠버 항과 프린스 루퍼트 항 확장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이러한 세계 수준의 서비스는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웨스턴 캐나다 항구들은 연간 1,0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캐나다 전역을 관통하여 미국과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 서비스도 더욱 확충될 계획입니다.

## 대표적인 양대 항구

### 메트로 밴쿠버 항

메트로 밴쿠버 항은 북미 대륙에서 수출 물동량 1위, 전체 물동량 4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130개국 이상을 상대로 약 250만 TEU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깊은 수심을 유지하며 안전한 메트로 밴쿠버 항의 전천후 터미널은 흡수 제약이 사실상 전혀 없으며 슈퍼포스트파나막스급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방대한 부두 인입 철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항구 시설 중에는 28곳의 대형 해상 화물터미널이 포함되며, 이 중 4곳에는 20개 컨테이너 선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2010년 1월 메트로 밴쿠버 항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은 남미와 북미 대륙에서는 최초로 퀴드리프트 컨테이너 갠트리 크레인을 설치한 델타포트 제3부두를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이번 부두 확장은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델타포트의 처리 능력을 연간 180만 TEU로 50퍼센트 향상시켰으며 20헥타르 규모의 컨테이너 보관 시설을 추가시켰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항은 전세계 해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목적으로 기존 터미널의 효율을 개선하여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존 터미널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항은 2020년까지 연간 500만 TEU 이상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N (Canadian National), CP (Pacific), BNSF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등 3대 클래스1 철도 노선이 메트로 밴쿠버 항을 연결합니다. CN과 CP는 컨테이너 및 화물 터미널 인입 철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항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 트럭 운행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트럭 운행 예약 제도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북미 전역으로의 연계

인입 철로를 통해 화물 취급 단계를 줄여 환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화물 파손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N과 CP는 2단계 복합운송 열차를 매일 운행하여 캐나다와 북미 대륙 전역을 대상으로 화물을 신속하게 운반하고 있으며, 시카고를 비롯하여 북미 주요 도시들을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N과 CP 모두 최적의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로를 확장하고 추가로 열차를 구매하는 등 인프라 확충 및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프린스 루퍼트 항

2007년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장과 더불어 프린스 루퍼트 항은 태평양을 잇는 컨테이너 화물 교역의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을 위해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미에 도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린스 루퍼트 항은 북미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자랑하는 천연 항구로서 안정된 노동력과 배후 지역사회, 북미 중서부와 터미널을 체증 없이 효율적으로 직접 연계하는 철도, 그리고 무한한 성장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통합형 인입 철도와 매일 터미널까지 직접 운행되는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키산맥을 포함한 대륙 분수령을 통과하는 CN 철도의 경사도는 1퍼센트 미만인 까닭에 길이가 3킬로미터에 이르는 열차를 끌기 위해 필요한 기관차의 수나 연료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린스 루퍼트 항 확장 계획에는 페어뷰 터미널의 처리 능력을 연간 200만 TEU로 확대하고 선사들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2터미널을 건설하여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400만 TEU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린스 루퍼트 항은 대량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두 곳의 최신식 터미널과 항구를 통해 벌크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화물에는 밀, 곡물, 보리 외에 제철용탄, 발전용탄, 석유코크스, 우드 펠릿, 원목 등이 있습니다.



### 방대한 부두 인입 철로

메트로 밴쿠버 항은 북미에서 가장 긴 부두 인입 철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 수준의 서비스는 2020년까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 항구들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1천만 TEU로 증가될 계획이며 캐나다 전역과 미국으로의 철도 및 도로 서비스 역시 추가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확고한 지원

캐나다 정부는 태평양 관문의 장기적인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관문 및 통로 구상이 출범한 이래, 연방 정부는 서부 해안에 위치한 4개 지방 정부 및 기타 민간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정부 예산을 포함하여 28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추가하여, 민간부문에서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13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합되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아시아-태평양 관문 및 통로 운송 시스템 전체의 처리 능력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 추가 정보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을 통해 화물을 수송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www.pacificgateway.gc.ca](http://www.pacificgateway.gc.ca)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산하 기관인 캐나다 무역자문서비스(TCS)에서는 캐나다 기업이나 단체들이 해외에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150개 이상의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TCS는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캐나다 최대의 종합 네트워크로서, 전문가의 자문과 문제 해결 요령, 전세계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infoexport.gc.ca](http://www.infoexport.gc.ca)

인베스트 인 캐나다 북미 지역으로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캐나다가 여러분에게 최적의 투자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www.investincanada.gc.ca](http://www.investincanada.gc.ca)

## 기록적인 속도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이 2007년에 개통된 이후에는 컨테이너선이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프린스 루퍼트를 거쳐 시카고까지 항해하는데 단 12일이 소요됩니다.

